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박정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장
jounghopark@kiep.go.kr

정민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부연구위원
mjeong@kiep.go.kr

강부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전문연구원
bgkang@kiep.go.kr

김초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세계지역연구센터 신북방경제실
러시아·유라시아팀 연구원
crkim@kiep.go.kr

김석환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초빙교수
berezka@kifes.org

세르게이 수트린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교수
s.sutyurin@hotmail.com

올가 트로피멘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교수
o.trofimenko@spbu.ru

이리나 코르군 러시아 과학아카데미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irina.korgun@yandex.ru



차 례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2. 조사 및 분석 결과
3. 정책 제언

주요 내용

- ▶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대러시아 경제협력에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투자와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과제임.
- ▶ 푸틴 3기와 4기 동안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14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와 러시아의 해외투자는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러시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서방의 경제제재, 수출제한 등 삼중고로 인한 경제 침체를 겪었기 때문에 투자가 감소됨.
- ▶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진출 목적 투자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저임금 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임.
 - 반면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14년 0.54%, 2015~19년 0.25%로 크게 감소함.
- ▶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제제재 우회 수단을 모색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함.
- ▶ 푸틴 4기 한·러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 △에너지와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러시아 전략산업 부문 참여 기회 모색 △제3국 시장 공동 진출방안 마련 △새로운 형태의 금융지원체계 구축 등을 들 수 있음.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지난 30년 동안의 한국과 러시아 관계를 전반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시기별로 다소간의 부침이 있었으나, 양국은 정치외교(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경제통상(교역 확대), 사회문화(비자 면제와 인적교류 등) 부문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음.
 - 그에 반해 상호 투자와 다자(남북러 삼각 협력 사업 등) 부문에서의 경제협력 추진은 기대만큼의 결실을 얻지 못했음.
- 한국은 수교 30주년을 계기로 대러시아 경제협력을 되돌아보면서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임.
 - 특히 미·중 패권 경쟁과 중·러의 전략적 협력관계 구축 등 국제질서의 재편과 디지털 전환에 의한 산업구조의 근본적 변화(이른바 4차 산업혁명 도래), 기후 변화로 인한 생태계 교란과 코로나19 팬데믹 현상 등 패러다임의 근본적 변혁을 고려한 새로운 형태의 협력 전략 마련이 필요함.
 - 투자와 교역의 시너지 효과를 바탕으로 한 경제협력 관계의 질적 변화는 한국과 러시아 수교 30주년 이후의 중요한 정책과제임.
- 상호 투자를 통한 한국과 러시아 간 경제협력의 확대는 러시아가 추진하고자 하는 이러한 국정과제와 연계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우선 글로벌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트럼프 정부의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 무역주의 기조 강화, 브렉시트에 따른 유럽연합의 결속력 약화,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 및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코로나19 팬데믹 현상과 글로벌 경제성장 둔화 등)에서 러시아의 투자환경 및 해외 투자 패턴의 주요 내용과 특징을 고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 푸틴 4기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함과 동시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투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표임.

2. 조사 및 분석 결과

1) 푸틴 3기(2012~18년)와 4기(2018~) 러시아의 해외투자

① 대러시아 외국인 직접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

- 푸틴 3기와 4기 동안 투자 동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해보면, 2014년 발발한 우크라이나 사태를 기점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는 큰 폭의 감소 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2012년 505억 8,800만 달러, 2013년 692억 1,900만 달러에서 2015년 68억 5,300만 달러까지 감소했으며, 그 이후 증감을 반복하고 있지만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됨.

- 러시아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악화된 환경 속에서 사업환경과 투자환경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그 결과 기업환경평가(Doing Business) 순위가 2012년 120위에서 2020년 28위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세계은행은 순위발표 시 10개 지표에 해당하는 수치를 형식적으로 비교 및 분석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제도적 편의, 정부기관의 감사, 정부조달 특혜 등 기업 운영 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지표를 고려하지 않아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권역별로 주요 투자국을 선정해서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전통적으로 러시아와 투자협력을 진행했던 유럽 국가의 경우 연도별 투자 규모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러시아의 상위투자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

- 푸틴 정부 3기(2012~18년)와 4기(2018~)를 비교해 보면, 유럽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음.

- 2016년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의 대러시아 투자가 증가한 점은 이례적(싱가포르 투자 컨소시엄에서 Rosneft의 지분을 매입한 것과 관련되어 있고, 이 계약으로 2016년 전체 FDI 중 50%가 싱가포르에서 유입됨)인 현상이며, 유럽의 경우 2014년 크림반도 합병을 기점으로 대러시아 FDI가 급격하게 감소했다가 2018년 푸틴 4기 이후 반등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미국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가장 강력하게 부과하고 있는 나라이지만 2018년까지 미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감소하지 않았음.

② 러시아의 해외투자 동향과 주요 특징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ODI)는 2014년 크림반도 합병 사태와 2018년 푸틴 4기 정부 출범 이후 다소 감소하는 모습을 보임.

- 러시아의 해외직접투자의 절반 이상이 유럽에 집중되어 있는 점을 고려한다면, 2014년 이후 러시아에 부과된 서방의 경제제재가 러시아의 해외투자 감소 요인 중 하나임.

- 아울러 같은 기간 러시아는 국제원자재 가격 하락, 경제제재, 수출제한 등 삼중고로 인한 경제 침체기를 겪었기 때문에 러시아의 해외투자 감소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평가할 수 있음.

2) 한국의 해외투자자와 한·러 투자협력

① 한국의 해외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최근 5년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M&A 비중 증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제3국 진출 급증을 통한 시장진출 목적 투자 증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저임금 활용 투자 급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등의 특징을 보였음.

-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도 이런 트렌드와 유사한 움직임을 보였으나, 국가별 편차가 관찰되었음.
 - 전체 해외직접투자자와 신흥국 직접투자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제3국 진출 확대 기조가 신흥국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임.
 - 그러나 현지시장 진출 및 확대 목적의 수평적 투자가 확대되고 있는 경향은 동일하게 나타났음.

표 1. 한국의 세계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2015~19년 (2010~14년 대비)	비고
세계	형태	- M&A 비중 증가 · M&A: 27.51%→35.22%(7.71%p ↑) · 그린필드: 71.81%→64.13%(7.68%p ↓)	- 대기업, 중소기업 모두 M&A 증가 · 대: M&A 8.18%p ↑, 그린필드 8.23%p ↓ · 중소: M&A 9.13%p ↑, 그린필드 8.45%p ↓ - 주요 지역(아시아, 북미, 유럽, 중남미) 모두 M&A 비중 증가
	투자자 규모	- 중소기업 비중 증가 · 중소기업: 9.26%→19.71%(10.45%p ↑) · 대기업: 84.89%→77.65%(7.24%p ↓)	- 주요 지역 모두 중소기업 비중 증가
	목적	- 제3국 진출 급증 → 시장진출 목적 투자 증대 · 대기업: (제3국 진출) 11.89%→29.81%(17.92%p ↑) (현지진출) 40.55%→46.66%(6.11%p ↑) · 중소기업: (제3국 진출) 9.29%→26.82%(17.53%p ↑) (현지진출) 50.33%→55.06%(4.73%p ↑) - 대기업의 자원개발 투자 급감(21.92%p ↓ / 중소 2.91%p ↓) - 중소기업의 수출촉진(10.78%p ↓) 및 저임금 활용(7.24%p ↓) 투자 비중 급감	- 주요 지역 모두 제3국 진출 투자 비중 증가 - 아시아 지역의 저임금 활용 투자 비중 감소 · 대 4.32%p ↓, 중소 6.52%p ↓ - 선진기술도입 투자 증가 · 대 3.43%p ↑, 중소 0.25%p ↑: 북미지역이 견인
	업종	- 금융 및 보험업 비중 급증, 부동산업 비중 증가 · 대기업: (금융보험) 16.22%→32.03%(15.81%p ↑) (부동산) 8.21%→10.37%(2.16%p ↑) · 중소기업: (금융보험) 4.75%→29.40%(24.65%p ↑) (부동산) 12.04%→15.67%(3.63%p ↑) - 중소기업의 제조업 비중 급감(21.53%p ↓, 대기업 3.89%p ↓)	- 주요 지역 모두 금융 및 보험업 비중 증가 - 아시아 지역의 제조업 비중 감소 · 대 7.26%p ↓, 중소 16.63%p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신흥국의 내수시장을 공략하는 투자가 증가한 배경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신흥국의 위상이 변화한 점을 들 수 있음.**
 - 과거에 신흥국이 선진국 시장을 위한 저임금 기반의 최종재 생산기지로서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생산기지보다는 시장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다는 특징이 있음.
 - 아울러 신흥국의 생산성과 임금, 소득이 상승함에 따라 내수시장의 규모도 확대되고 있음.

표 2. 한국의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2015~19년 (2010~14년 대비)	비고
신흥국 (중국, 베트남, 인나, 인도, 브라질)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M&A 비중 증가 · 베: M&A 9.02%p ↑, 그린필드 8.77%p ↓ · 인나: M&A 20.39%p ↑, 그린필드 20.40%p ↓ · 인도: M&A 6.34%p ↑, 그린필드 9.38%p ↓ · 브라질: M&A 20.39%p ↑, 그린필드 20.40%p ↓ - 중국 M&A 비중 소폭 감소 · M&A 1.65%p ↓, 그린필드 1.68%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은 2010~14년에 전 기간(2005~09년) 대비 M&A 비중 증가 · M&A 8.98%p ↑, 그린필드 3.88%p ↓
	투자자 규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 중소기업 비중 증가 · 중국(1.13%p ↑), 베(10.37%p ↑), 인나(6.19%p ↑), 인도(1.82%p ↑), 브라질(6.99%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19년 국별 중소기업 비중: 베트남, 인나 외 세계 평균(19.71%) 대비 낮은 수준 · 중국(16.53%), 베(38.22%), 인나(22.44%), 인도(14.76%), 브라질(10.84%)
	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 현지시장진출 증가 → 시장진출 목적 투자 증대 · 대기업: 중국(11.28%p ↑), 베(18.20%p ↑), 인나(23.82%p ↑), 인도(12.58%p ↑), 브라질(14.70%p ↑) · 중소기업: 중국(15.97%p ↑), 베(10.94%p ↑), 인나(5.29%p ↑), 인도(22.23%p ↑), 브라질(4.27%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국가 현지시장진출 투자가 압도적(제3국 진출 투자 비중은 꾸준히 저조) - 모든 국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투자 비중 감소 - 중국, 베트남의 저임활용 투자 비중 감소
	업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기업의 금융·보험업 비중 증가 · 베: 18.97%p ↑, 인나: 43.12%p ↑ (중 6.36%p ↓, 브 11.15%p ↓) - 제조업 비중 변화 국별 편차 · 중: 대 10.26%p ↑, 중소 7.51%p ↓ · 베: 대 5.42%p ↑, 중소 1.47%p ↑ · 인나: 대 18.78%p ↓, 중소 0.27%p ↓ · 브: 대 19.67%p ↓, 중소 4.5%p ↑ · 인도: 대 0.43%p ↓, 중소 9.03%p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인도 중소기업의 제조업 비중 감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②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 동향과 특징

- **러시아의 경우 절대적인 투자규모 감소로 유의미한 결론을 내리는 데 한계가 있었으나, 시장진출 투자 비중이 크게 확대된 점은 동일함.**
 - 그러나 중소기업의 비중이 소폭이지만 감소했고, 주요 신흥국 가운데도 중소기업 비중이 낮은 수준인 점에 비춰볼 때 대러시아 투자 진출에서 중소기업이 느끼는 부담감이 매우 큰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최근 크게 위축된 한국기업의 러시아 진출은 이미 진출한 제조분야 대기업의 수평적 투자에 집

증되어 있는데, 이들 기업이 자동차, 식료품 분야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현지의 수입대체정책 등 투자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점도 특징적인 현상임.

-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에서도 최근 10년간 M&A형 투자가 확대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유망 기업의 신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보다는 현지 투자환경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보수적인 투자 행태로 해석할 수 있음.

표 3. 한국의 러시아에 대한 직접투자 특징

		2015~19년 (2010~14년 대비)	비고
러시아	형태	- M&A 비중 감소했으나 2005-09년 대비 높은 수준 · M&A 5.88%p ↓, 그린필드 6.08%p ↑	- 2010~14년에 전 기간(2005~09년) 대비 M&A 비중 증가 · M&A 8.98%p ↑, 그린필드 9.11%p ↓
	투자자 규모	- 중소기업 비중 감소 · 중소기업: 15.33%→13.65%(1.68%p ↓) · 대기업: 83.14%→84.93%(1.79%p ↑)	- 세계 평균, 주요 신흥국 대비 중소기업 비중 낮은 수준
	목적	- 현지시장진출 비중 소폭 감소했으나 큰 비중 차지 · 대기업: 89.25%→88.52%(0.73%p ↓) · 중소기업: 31.67%→28.57%(3.10%p ↓)	- 2010~14년 대기업의 현지시장진출 비중 급증 · 57.52%(2005~09년)→89.25%(2010~14년)→88.52%(2015~19년) - 중소기업의 자원개발 비중 증가세: · 45.34%(2005~09년)→59.17%(2010~14년)→59.74%(2015~19년)
	업종	- 대기업의 제조업 비중 급감 및 도소매업 비중 급증 · 제조업: 71.74%→56.99%(14.75%p ↓), 중소기업(1.45%p ↓) · 도소매업: 1.84%→29.44%(27.60%p ↑), 중소기업(3.91%p ↑)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직접투자통계, DB 자료(검색일: 2020. 8. 18)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러시아 시장에 이미 진입해 활동하고 있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투자수익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최근 신규 투자가 부진한 배경을 필히 고려해야 함.

- [표 4]에서 보듯이 한국정부는 2010년대 들어 큰 틀에서 신북방정책을 통해 한국기업의 대러시아 진출 활성화를 꾀했으며, 그 일환으로 정체기에 진입한 양국간 협력의 모멘텀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됨.
- 그러나 이 시기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는 크게 위축되어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0~14년 0.54%, 2015~19년 0.25%로 크게 감소하게 되었음.
- 같은 시기 한국의 전체 해외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해 2019년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과 반대되는 행보를 보였으며, 주요 신흥국에 대한 직접투자 트렌드에 비해서도 그 둔화세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표 4. 한·러 투자협력 관련 정책 환경 및 주요 이슈

시기	2010~14년	2015~19년
정책 환경	(한)유라시아 이니셔티브(북방정책) (러)신동방정책/경제현대화 정책 ('12년 극동개발부 신설→'19년 극동북극개발부로 개편)	(한)신북방정책/4차산업혁명 대응을 통한 신산업·신시장 창출 필요성 증대 ('17년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신설) (러)신동방정책/경제현대화·다각화 필요성 심화, 제조업 경쟁력 강화('14년 이후 서방과의 상호 경제제재 지속으로 수입대체 강화), 4차 산업혁명 대응 디지털 전환·혁신 강조
양국 관계 주요 이슈	- 2010년 수교 20주년에 모스크바 롯데호텔 개관, 상트페테르부르크 현대자동차 공장 준공 - 공식·국빈 정상회담 2회('10.11, '13.11) - 비자면제협정 체결('13.11 체결, '14.1.1 발효) - 한·러 공동 투자자 플랫폼 조성('13.11 정상회의 합의): 수출입은행-러 대외경제은행(VEB) 간 10억 달러, 한국투자공사(KIC)-러 직접투자기금(RDIF) 간 5억 달러 등 총 30억 달러 규모 - 2014년 양국간 교역액 258억 달러로 최고치 기록	- 공식·국빈 정상회담 1회('18.6) - 러 극동 동방경제포럼('15년 출범) 계기 정상회담 2회('16.9, '17.9), -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19년 6월 협상개시→'20년 5~6월 5차 협상/'17년 9월 한·EAEU FTA 협의 위한 공동실무작업반 설치 합의) - 한국, 러 산업박람회 '이노프룸(예카테린부르크) 파트너국으로 참여('18년)
주요 투자 협력 의제	△러 극동개발 협력(공동 투자자 플랫폼 조성) △러 경제현대화 정책 참여(에너지효율, 과학기술, IT·전자정부 등) 등	△현대화 및 혁신 산업협력(한·러 혁신 플랫폼 구축, ICT, 보건의료 협력, 소재·부품·장비 가치사슬 구축 등)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9개 다리, 투자자 플랫폼 등) △한·EAEU FTA 및 한·러 서비스·투자 FTA 추진 △상호 투자 및 기업 진출 활성화(투자 환경 개선, 현지 경영애로 해소 등)

자료: 저자 작성.

3)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

① 해외직접투자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적 배경

● FDI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 분석에 따르면 FDI를 결정하는 변수는 매우 다양하며, FDI는 소비와 생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경제 변수에 영향을 받음.

- FDI 규모는 GDP와 환율과 같은 경제 변수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며, 경제활동 전반을 규정하는 제도 및 문화 변수에도 영향을 받음.

- 환율, 거시경제 변동성과 같은 가격변수가 주로 단기적 관점에서 FDI 유입 양태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경제성장률과 GDP 규모와 같은 실물변수는 중장기적 측면에서 FDI 유입 양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제도 및 문화 변수는 경제성장률을 결정하는 이른바 성장의 '본원 요인(fundamental factor)'이므로 실물변수보다 더욱 장기적인 시계에서 FDI 유입을 결정함.

● FDI 유입의 양적 양태(quantitative pattern)뿐 아니라, 질적 양태(qualitative pattern) 역시 위의 변수들로부터 영향을 받음.

- 여기서 질적 양태란 총계적인 관점에서 FDI의 다양한 구성적 특성을 의미하는데, FDI 유입 총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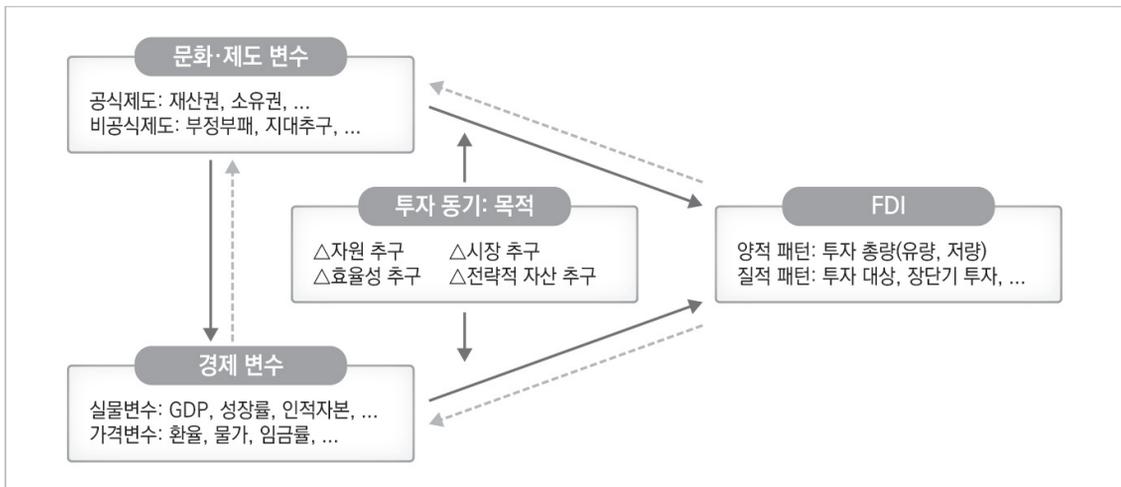
이 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FDI 발원국의 투자규모 순위, FDI의 업종(sector)별 투자 구성 (composition), FDI의 장·단기 투자 구성이 변할 수 있음.

- 예를 들어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는 FDI 총량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미국과 EU의 대러시아 FDI 비중 감소, 제재에 큰 영향을 받는 업종으로의 FDI 유입 감소,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단기 FDI 유입 증가 등의 질적 변화를 초래할 수 있음.

● FDI에 질적·양적으로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이 FDI의 동기(motiv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함.

- 예를 들어, 수혜국의 경제성장이 지체되는 경우를 상정해 볼 경우, 시장진출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시장추구형(market-seeking) FDI 유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소유권(ownership)과 재산권(property right) 보호가 약화되어 탐사 및 채굴 권리 유지가 어렵거나 부정부패가 만연하여 사업 진행 및 수익 확보에 있어 불확실성이 높으면 장기 투자(long-term investment)에 기반한 FDI 및 지식재산권에 민감한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FDI 유입은 다른 동기에서 비롯된 단기(short-term) FDI 유입보다 상대적으로 더 크게 감소할 수 있음.
- 결국 [그림 1]에서 잘 나타나듯이 FDI 결정요인과 이러한 결정요인이 FDI의 질적·양적 패턴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FDI의 동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필요가 있음.

그림 1. FDI 결정요인과 FDI 투자 동기



자료: 저자 작성.

-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짐에 따라 다국적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를 설명하는 매우 다양한 견해가 존재해 왔는데, 신고전파 무역 이론(neoclassical trade theory), 불완전 시장 이론(theory of market imperfections)에 따른 기업 의사결정, 상품 생애주기 이론(product lifecycle theory) 등이 있음.

- Dunning(2000)은 FDI의 목적을 둘러싼 이러한 다양한 견해를 가장 효과적으로 종합한 관점을 제시함.

- 다국적 기업의 해외직접투자 동기는 자원 추구(resource-seeking), 시장 추구(market-seeking), 효율성 추구(efficiency-seeking), 전략적 자산추구(strategic asset or capability-seeking) 등으로 분류됨.

② 한국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과 영향

- 한국의 대러시아 FDI 분기별 자료(수출입은행 해외투자 통계)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수행함.

-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이 FDI의 총량에 미치는 영향뿐 아니라, 이러한 영향이 FDI 대상이 되는 업종 및 FDI 동기에 따라 어떠한 양태로 나타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 실증분석에 이용되는 모형은 기본적으로 Brainard(1997), Ekoholm(1998), Lipsey(1999) 등이 제안한 선형 로그방정식의 추정모형¹⁾에 상술한 문화·제도 변수를 추가한 것임.

-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러시아와 투자교류를 시작한 2000년부터 2019년까지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을 투자 동기별, 업종별, 투자자 규모별로 각각 나누어 고찰함.

- 주요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분석 기간(2000~20년) 동안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에는 경제적 변수 이외에도 문화·제도 변수가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했으며, 특히 △전반적 투자환경 △부정부패 완화와 같은 문화·제도 여건 개선에 의한 FDI 증가 효과는 △GDP △임금 수준 △환율 △물가 등 경제 여건 개선으로 인한 FDI 증가 효과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통계적인 관점에서는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우리나라의 전체 러시아 FDI에 미친 부정적인 영향은 예상보다 뚜렷하지 않았던 반면, △자동차 △전자장비 △화학제품 등 중급의 기술을 요구하는 중부가가치 제조업으로의 FDI 유입은 대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뚜렷하게 감소했음.
- FDI 결정요인은 투자 동기(자원개발을 위한 FDI가 시장진출을 위한 FDI보다 GDP 변화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 투자 대상 업종(제조업 부문, 특히 중·고부가가치 제조업에 대한 대러시아 FDI는 경제 변수 못지않게 문화·제도 변수에 의해 더욱 유의한 영향을 받음) 및 투자 기업의 규모(전반적인 투자 여건 및 부정부패와 같은 문화·제도적 여건이 대러시아 FDI에 미치는 부

1) 이 모형을 적용하여 대러시아 FDI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국내연구로는 이재영 외(2008)가 있다.

정적인 영향은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서 더욱 유의미하게 나타남)에 따라 매우 다른 모습을 보임.

- 주요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음.
 - 우리나라의 대러시아 FDI 총액뿐 아니라 투자 지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원추구형 FDI 및 중·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에 대한 FDI를 유의미하게 늘리기 위해서는 문화·제도적 여건 개선이 필요함.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가 장기화할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경제제재를 우회할 수 있는 수단 확보도 중요한 과제이며, 동시에 대러시아 FDI를 확대할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다시 말해서 제재 우회수단을 모색함과 동시에 △거버넌스 개선을 통한 제도적 여건 보완 △EAEU 체결을 통한 공동시장에 대한 진출 확대 △인적교류 확대를 통한 인적자본 확충 등의 구조적 대응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함.

3. 정책 제언

① 한·러 투자협력의 정책 시사점

- 러시아의 글로벌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러시아 기업들의 기술 습득 및 해외 신규 시장 진출에 대한 의지도 더욱 커지게 되었음.
 - 러시아 기업들의 글로벌화에 따른 적극적인 해외투자 경향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과 크림반도 병합에 따른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 조치의 시행 이전까지 지속됨.
 - 2018년과 2019년에도 러시아는 전 세계 외국인 직접투자 순위에서 유입과 유출 모두 20위권 안에 위치했는데, 이런 수치는 러시아 기업들과 글로벌 사회 간 연계성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음.
- 러시아는 여전히 글로벌 M&A 시장에서 상당한 매력을 유지하고 있으나,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로 투자를 국한시켜보면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름.
 - 러시아의 대한국 투자는 거의 미미한 편이며, 크림반도 병합 이후 경제제재로 인해 해외투자가 위축된 2014년 이후는 차치하더라도 러시아의 해외투자가 가장 활발했던 시기인 2007~10년 사이에도 러시아의 한국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전무함.
 - 반면 이 시기에 한국기업들(현대, 삼성, LG, 롯데 등)은 러시아에 대규모 투자(13.6억 달러)를 진행했으며, 이런 경향은 2013년까지 지속되었다가 2014년 이후 급감함.
 - 가장 큰 이유는 당시 러시아의 해외투자를 선도했던 25개 다국적 기업들(MNC)과 한국기업들

간에 무역 및 통상 거래가 미미했거나 또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는 데 있음.

- 또 다른 이유는 러시아 주력 수출기업들의 거래 행태와 에너지 및 천연자원과 같은 상품 거래의 성격(러시아의 주력 수출품인 에너지와 자원 등과 관련한 거래는 다운스트림 및 업스트림 산업 간 연계와 금융협력 등이 복잡하게 얽힌 채 장기계약 형태로 진행됨)에 있는데, 한국은 러시아의 유정 및 광물개발권 투자에 대한 관심이 적었음.

● 러시아의 대한민국 투자가 사실상 부재했던 데 비해, 한국기업들은 수교 이후 러시아 시장 진출에 보다 적극적이었음.

- 투자도 초기의 시장 탐색이 끝난 후인 2000년대 초반부터 대규모로 진행될 수 있었음.
 - 한국기업들 입장에서는 냉전시기 이념 장벽에 막혀 있던 새로운 시장이 개방되었을 뿐 아니라, 러시아 시장의 장기적 전망이 안정성을 보이자 시장 진출 및 개척 차원에서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 것임.

● 한국의 대러시아 직접투자를 다른 나라에 대한 한국의 투자와 비교해 보면, 그 규모가 큰 것은 전혀 아니었음.

- 2000~19년 말까지 한국의 대러시아 총직접투자(FDI) 누적액은 26억 1,646만 달러로 같은 기간 한국의 총해외직접투자 누적액의 0.54%에 불과함.
 - 반면 같은 기간 해외직접투자 누적액 가운데 다른 신흥국인 중국은 13.5%, 베트남은 5.0%, 인도네시아는 2.1%, 인도는 1.2%, 멕시코는 1.2%를 차지함.

② 한국의 대러시아 투자 활성화 방안

● 러시아 기업들 및 외국기업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투자 분야에서 협력 확대를 모색하는 것임.

- 지난 30여 년간의 한국의 대러 투자를 살펴보면, 에너지 및 금속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는 사실상 부재함.
 - 특히 에너지 분야에 대한 투자는 연관 분야의 투자 가능성을 높이고 상호 협력 확대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함.

● 새롭게 등장하는 혁신 산업 분야에서 협력을 모색하는 것임.

- 앞서 언급한 에너지와 금속 산업을 제외할 경우 최근 두드러진 변화는 러시아 혁신 산업 분야에 대한 정부의 전략적 지원과 더불어, 관련 분야 러시아 기업들의 경쟁력 증진 및 외국기업과의 협력 확대임.
 - 한국과 러시아가 혁신 산업 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의 혁신 산업 생태계, 특히 러시아의 전통 산업 분야와 금융과의 협력 관계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한 현실적 전략을 수립해야 함.

- 러시아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전략산업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임.
 - 러시아가 비교우위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가진 분야를 선정해 관련 산업체와 적극적인 협력 분야를 개척하는 전략임.
 - 2018년 9월 보잉은 세계 최대 티타늄 제조기업인 러시아 아비스마(VSMPO-Avisma)와 합작으로 스페르들로프스크에 8,200만 달러(930억 원)를 투자하는 합작기업 설립을 발표했는데, 당시 투자 승인의 이유 중 하나는 경제제재 속에서도 양국 산업간 전략적 협력의 필요성, 그리고 보잉과 아비스마 간에 이루어진 선행 투자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함.

- 한국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의 해외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의 투자 지원 프로그램을 융자가 아닌 투자를 중심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펀드를 활용하는 것임.
 - 아울러 필요하다면 기존의 유명무실한 러시아 및 북방 관련 기금들을 통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투자가 가능한 지원 기금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여기에 투자여력을 높이기 위해 연불 금액 방식을 확대하는 것도 실질적인 방법 중 하나임.

- 한국과 러시아가 다른 제3국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는 것임.
 - 이와 관련해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의 국가 프로그램인 'Vision 2030' 실현을 위한 '러시아-사우디-중국' 3자 펀드를 참고할 수 있음.
 - 이 3자 펀드는 주로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의 첨단기술 프로젝트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서방의 대러시아 경제제재를 우회하거나 새로운 협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이고 전략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것임.
 - 한국의 경우도 투자협력이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금융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자원 분야의 대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의 혁신기업을 만들어가고 있는 러시아 내부의 흐름에 발맞춰 이들 기업과 첨단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서방의 경제제재 속에서도 협력을 지속하고 있는 유럽, 중국, 사우디, 남아공 등의 사례들을 면밀하게 분석해서 한국과 러시아 간 투자협력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해 나가야 함. **KIEP**